

이번에 하가다 캠프를 3번째 참여하는거였다. 그래서 그런지 익숙하기도 하고 뭔가 적응하기에 더 쉽고 아는사람도 있어서 다함이라고 생각했다. 처음에는 이번에 참여하는것에 대해 별 생각없이 그냥 아 이번에도 그냥 참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사람들이랑 다같이 갈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좀 신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. 그리고 가서 이제 캠프를 시작하는데 아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여서 좋았고 좀 설레었다. 그러나 역시 하가다를 시작하고 나니 밥도 그렇게 맛있지 않았고 하가다 하기 좀 지루하고 졸리고 힘들었다. 예배도 늦게 끝나서 취침시간도 늦어지다 보니 더 피곤해졌고 나는 정신차리고 있기에 바빴던 것 같다. 처음에 하가다를 할 때 집중해서 엄청 열심히 외울려고 노력을 했다. 그랬는데 저번에 왔었을 때 보다 더 잘 외워지고 훨씬 외우기에 수월했었다. 그래서 엄청 혼자 신나서 외우고 예배까지 드리니 시간이 엄청 훌쩍가는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생활 패턴이 똑같아지면서 지루해지고 설교시간에도 피곤해서 가끔 졸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캠프 때 받은 은혜는 많았던 것 같다.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도 다 좋았고 찬양시간 기도시간 다 너무 좋았다. 가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찬양을 부를 때나 통성기도를 할 때나 부끄러워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다 보니 나도 저절로 그렇게 되고 찬양할 때 나 기도할 때 나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된 것 같다. 또 하가다를 하다가 점점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활동하는 것도 재밌고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. 이번에 마가복음을 하가다 하게 되었는데 전에 갔었을 때 도 마가복음을 해서 그런지 내용도 더 잘 알고 이해하기가 쉬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내용을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것과 조롱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조에서 표현을 하는데 나는 나레이션이라 연기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 진짜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. 또한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캠프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부흥회를 하시는데 너무 열기도 뜨겁고 진짜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다. 그 많은 목사님들중의 이름이 기억이 남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의 성함이 외우기 쉬었다. 한번 더 보게 되신 목사님도 있었다. 나는 저스틴 김 목사님한테서 기도를 받았는데 너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고 또한 그 큰 그릇 때문에 힘들어 할수도 있을것 것 같다. 나는 캠프 끝나고서라도 하가다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였다.